

구 오타루 창고

오타루 창고는 1890 년에 이시카와현 가가에서 해운 회사를 운영한 니시타니 쇼하치와 니시데 마고자에몬에 의해 매립 직후의 땅에 세워졌습니다. 화물을 하역하고 처리하던 안뜰을 에워싸듯 지어져 있습니다.

각 건물의 지붕 가장자리에는 특히 눈길을 끄는 기와 샤치호코(상상 속의 바다 생물)가 4 쌍, 총 8 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샤치호코는 일본의 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티브이지만, 성 이외에 장식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 시설 이외에는 사카이마치 거리의 이와나가 시계점의 지붕에도 샤치호코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샤치호코는 화재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으며,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창고의 일부는 오타루시 종합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축척 모형, 사진, 미술품과 기타 공예품을 통해 오타루시의 역사를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일부에는 점포와 상인 가옥의 실물 크기 모형이 있어 19 세기 초의 전형적인 상점가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시로는 오타루 주변의 산과 숲의 야생동물에 초점을 맞춘 진짜와 똑 닮은 실물 크기의 디오라마가 있습니다.